

# 운동주 마지막 발자취서 저항시인 정신 기억하다

시산맥 사회 20명 '일본 문학기행' 옥사한 형무소 인근서 시 낭송 "운동주 문학세계 널리 알려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단 우물을 홀로 찾아가 선/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운동주 '자화상')



운동주

저 있다. 참가 일행은 시인이 옥사한 후쿠오카 형무소(현재는 후쿠오카 구치소로 바뀜) 인근 모모치 공원에서 추모시를 낭송하고 시인의 낮을 기렸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24년 전부터 후쿠오카 구치소 옆 공원에서 매월 운동주 시 낭송회를 개최해 온 니시오카 겐지(후쿠오카 현립대) 명예교수가 동행해 뜻 깊은 시간이었다. 니시오카 겐지 교수는 1994년 '운동주의 시를 읽는 모임'을 이끌어 오다가 현재는 '운동주 시비 건립 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의 세종대학 일어일본과에서 10여년간 교수생활을 했던 겐지 교수는 지난해 운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이나 교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1942년을 전후한 무렵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탈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조선어말살 정책 일환으로 일본어를 쓰도록 했으며 신사참배까지 강요했다. 이 시기가 문학적 암흑기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운동주 시인은 가혹한 압제에도 불구하고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자화상'에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시대에 대한 고뇌 가운데서도 조국의 해방에 대한 신념이 담겨 있다. 광주일보와 운동주서시문학상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간 '시산맥' 사회가 최근 운동주의 발자취를 찾아 일본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문정영 시산맥 대표, 시산맥 사회 김필영 회장, 오태환 제2회 운동주서시문학상 수상자, 이성렬 운동주 서시문학상 심의위원, 서영택 운동주 서시문학상 해외특별상 위원,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인 진혜진 시인, 이화영 시인 등 모두 20여 명이 3박4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이번 문학 행사는 운동주 서시 문학상 수상자와 함께 운동주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

를 개최해 온 니시오카 겐지(후쿠오카 현립대) 명예교수가 동행해 뜻 깊은 시간이었다. 니시오카 겐지 교수는 1994년 '운동주의 시를 읽는 모임'을 이끌어 오다가 현재는 '운동주 시비 건립 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의 세종대학 일어일본과에서 10여년간 교수생활을 했던 겐지 교수는 지난해 운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이나 교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후쿠오카를 찾아오는 한국 사람이 많아지면서 운동주가 옥사한 형무소를 안내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도 방문 일행에게 운동주 시인이 수감됐던 형무소 등 시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겐지 교수는 "현재 후쿠오카 형무소는 구치소로 바뀌어 있는데 원래 위치는 구치소 뒤편 철망 있는 곳이 맞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50주기 추모식을 올린 사람들이 구 형무소가 현재 구치소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줄만 알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구치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산맥 사회는 이번 문학기행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하시마(군함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절해 고도에 둘러싸인 그곳에서 강제 징용을 당해 죽어간



후쿠오카구치소로 바뀐 후쿠오카형무소 모습.

동포들의 비극을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군함도 어디에도 조선인을 추모하는 상징은 없었다. 이번에도 동행한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인 진혜진 시인(시형식 편집장)은 "과거 전쟁의 흔적과 원폭 피해자들의 절규가 담긴 동영상이 비치된 원폭기념관이 인상적이었다"며 "그러나 그들의 평화소녀상은 있고 우리의 위안부 평화소상은 반대하는 일본의 이중적 잣대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일본이 참회 공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산맥 사회 회원들은 이번 방문을 토대로 운동주 시인의 정신과 문학세계를 선양하는 데에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운동주의 발자취는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입을 모았다. 문정영 대표는 "운동주 시인을 비롯한 일제 치하 수많은 유국지사와 인재들이 일제의 만행으로 생명을 잃었다"며 "특히 시인으로서 모국의 언어를 갖고 뒤은 운동주 시인의 정신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4년째 매달 '운동주 시낭송회' 열은 니시오카 겐지 교수

## "옥고에 스러질때도 세계평화 꿈꾼 분... 후쿠오카 시비 추진 등 추모 계속할 것"

한국서 유학 중 작품서 영감 받아 시비 건립위 결성...추모객 안내도

1994년부터 후쿠오카 구치소 옆 공원에서 매월 운동주 시낭송회를 개최해 온 니시오카 겐지(후쿠오카 현립대) 교수는 "운동주의 시에는 사람을 반성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데가 있다"며 "앞으로 지구시민 운동이 활발해지면 '세계 평화의 사도'로 운동주를 내세우고 싶다"고 밝혔다. 겐지 교수는 일본 법정(法政)대학원(일어일문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연세대(국어국문과)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세종대학 일어일본학과에서 10여년 교수생활을 했고 후쿠오카 현립대학에서 17년 교수(한국어 한국문화담당)를 하고 지금은 은퇴한 상태다. 기자는 최근 겐지 교수와 이메일로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겐지 교수

-운동주 시인은 어떤 시인이라고 생각하나요? **▲**한국사람과 일본 사람이 1940년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결국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운동주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눌 것 같으면 그 반대로 사이가 좋아지고 분위기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는 '운동주 매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동주의 시에는 사람을 반성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인간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고 자기를 옥사하게 한 일본 사람을 생각하고는 눈물지었을 것이라는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시민 운동이 활발해지면 '세계 평화의 사도'로서 운동주를 내세우고 싶습니다.

-운동주 시인을 추모하는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운동주에 관해서는 1974년 일본에서 나온 잡지 'まだん(마당)'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름만 알게 된 것이었고 그 표제가 '저항시인 운동주'였기 때문에 그럴듯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후 연대에 유학가고 나서 문과대 올라가는 길 밑에 운동주 시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시비 앞에 서서 시 '서시'를 읽으니 내 마음이 그 시비 위에 있는 하늘로 올라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일본 후쿠오카 현립대 교수가 된 해(1994년) 10월 운동주 50주기를 후쿠오카에서 하고 싶으니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덕성여대 교수 김우중 교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때는 구 후쿠오카 형무소 주변에 있는 공원 사용허가서를 받아 달라는 것이었으니 가볍게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허가서만 받고 되는 일이 아니라 생각해 되었습니다. 본 사람들도 반드시 50주기 추모식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단체가 '운동주의 시를 읽는 모임'이었습니다.

-운동주 시인이 수감됐던 형무소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내 자신 그리고 50주기 추모식을 올린 사람들이 구 형무소가 현재 구치소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줄만 알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구치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동주 시인이 수감됐던 형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정확한 위치를 알려고 싶습니다. -향후 운동주 시인과 관련한 추모사업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 나이도 74세이며 '운동주 시비 건립 위원회'를 해산하면 형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가끔 안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숭실대학에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일본 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숭실대 국문과 초빙교수로 주로 대학원 수업을 맡았습니다. 한일 비교문학을 강의했고 재미있던 것은 '한중일 狂氣소설'에 대해 강의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문과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으려고는 유학시절에 생각할 수 없었는데, 당시에는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운동주 시인과 관련해 한국이나 교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작년 2017년은 운동주 탄생 백주년의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백년을 가지고 매듭을 짓고는 운동주를 멀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후쿠오카에서는 여태까지 24년동안 시민에게 운동주를 알려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시 당국이 시비건립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명도가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와 공동으로 '운동주 서시문학상'을 운영하는 계간 '시산맥' 사회가 최근 운동주 시인 발자취를 찾아 일본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운동주 시인이 옥사한 후쿠오카 형무소(현 후쿠오카 구치소) 인근 모모치 공원에서 추모시 낭독행사를 가졌다. (시산맥사회 제공)

나만 믿고 따라와

#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